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인민군대에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많은 량의 소금을 생산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다고, 밤새 해당한 보고자료들을 보고 또 보다가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하시면서 소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과 바다물에 의한 종전의 소금생산방법을 대비해보시



면서 새로운 소금생산방법의 경제효과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바다물에서 소금을 얻어내자면 저류지, 예비증발지, 증발지, 결정지를 거쳐야 하지만 지하초염수는 바다물보다 농도가 몇배나 높은것으로 하여 증발지와 결정지만 거쳐도 소금을 생산할수 있으므로 지금 리용하고있는 소금밭면적의 절반정도만 소금생산에 리용하고 나머지면적에서는 바다가양식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은 바다물로 생산한 소금에 비하여 서술이 적으므로 쓴맛이

거의 없고 맛이 좋으며 칼리움과 요드함유량이 많고 증속속함유량이 적으므로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식료품생산,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생산에서 리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서해안일대에는 경제적 가치가 큰 지하초염수자원이 풍부하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자면 해당 부문에서 탐사를 힘있게 벌려 유망한 지하초염수매장지들을 찾아내며 각지 제염소들에서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소금더미에 다가가시여 몸소 소금맛을 보아주시며 맛이 참 좋다고, 부드럽고 쓴맛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이곳은 보물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규모있게 쌓여있는 소금더미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고 또 보시며 정말 흐뭇하다고, 자신에게는 소금더미들이 백금산으로 보인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애로와 난관도 많았지만 인민군대는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

휘하여 나라의 소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당군의 본때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정책관철은 인민군대처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건말건 스스로 일감을 맡아안고 떨쳐나서 피약별과 세찬 바람속에서도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감으로써 우리 나라 소금공업력사에 하나의 분수령을 마련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군인들에게 대단히 수고들이 많았으며 높이 평가했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정말 대만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전망이 확

고하며 소금문제를 풀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에서 소금산, 백금산을 높이 쌓아가는것과 함께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소금생산은 식량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마음먹고 달려들어 투쟁한다면 능히 자급자족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소금생산 부문에서는 소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소금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류경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일떠서고있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의 귀중한 눈을 보호해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기에 당에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을 지난 기간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운 8건설국에 맡기였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소문없이 공사를 책임적으로 해왔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의 배치도와 평면도를 보신 다음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에서 중요한것은 눈치로

를 하는 전문병원이면서도 안경제작봉사까지 해주는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게 내외부 시공을 잘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설계의 요구대로 안과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알릴수 있게 외부장식을 특색있게 하며 건축물의 모든 요소에 대한 시공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 안경상점을 현대적미감이 살아나면서도 환자치료와 봉사활동에 유리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축물의 미학성과 편리성, 실용성을 철저히 보장하자면 설계와 시공, 운영단위들사이에 협동을 강화하고 책임성과 요구성들을 높이며 건설감독사업을 바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병원운동을 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우리 나라의 가장 발전된 안과전문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원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각종 비품들을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해결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안경상점에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경을 제작할 뿐만아니라 사람들의 기호와 성별, 연령별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안경들을 만들어 봉사해줄수 있는 물질기술적수단들도 그췌히 갖추어주시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류경안

과종합병원까지 일떠서면 우리가 최근 몇년사이에 해마다 현대적인 각종 의료봉사기지를 하나씩 일떠세운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최혜택속에서 실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류경안과종합병원도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인민병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어제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된 그곳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나라의 첫 양묘공장이 멋들어지게 일떠섰다고 하시였다.

나라의 첫 양묘공장! 일찌기 들어본적도, 본적도 없는 새로운 공장이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게 드는 목표생산을 공업화하여 다량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기때문이다.

조국강산을 수림화, 원림화하여 후대들에게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을 물려주는것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인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벌리도록 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식수정형, 수림화, 원림화사업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여 지휘부와 주변산들을 뒤덮고있는 울창한 수림을 보시고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었구만, 나무들로 꽉 찼소, 기분이

래일의 푸른숲을 그리시며

정말 좋소라고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병영주변을 감싸고있는 나무들을 보기 좋게 잘 자라왔다고, 군인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정성이 밑거름이 되었을것이라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북방의 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서도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침수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을뿐아니라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양묘장을

꾸러놓고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이 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산림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고 대대손손 물려가야 할

행복의 밑천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림조성과 그 보호관리를 최대의 애국으로 내세우신것이다.

전령토에서 거창하게 벌어지는 자연과의 전쟁, 산림복구전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통큰 결단력, 비상한 조직적수완을 지니신 령도자만이 내릴수 있는 결단이고 작전이다.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식수절에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종비나무, 목련을 심으시고 지난

해에는 비행사들과 수상나무, 은행나무, 구름향나무를 심으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그대로 온 나라에 나무심기운동의 뒤편을 일으키도록 하게 한 불씨가 되였다.

이 애국의 불씨가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에 양묘장들이 일떠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해마다 수십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자기들의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바치였다.

온 나라에 타번지는 산림복

구전투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주시려 그이께서 찾으신 양묘장들은 또 그 얼마인가.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고 우리 앞에 나선 숭고한 의무이고 조국의 미래,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양묘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지난해 12월에는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 양묘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를 위해 이렇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양묘장을 건설해 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거듭거듭 되뇌이시면서 힘겨웠지만 이렇게 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바로 이것이 김정일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양묘장의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나라의 산림조성을 위해 기울이시는 그이의 헌신과 로고가 있어 머지않은 앞날에 조국산천은 푸른 숲 설레이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나의 평양방문일정마감을 뜻깊게 장식한 만경대학소년궁전에 대한 참관은 후대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온넋을 다 바쳐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대대손손 반복을 누릴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한 또 하나의 인식과정이었다.

예로부터 왕들이 사는 집을 궁전이라고 불렀다.

베르사이유궁전, 알 함부라 궁전, 버킹엄궁전, 아우구스투스황제궁전...

이 세상에는 자기의 력사와 전통, 자재를 자랑하는 궁전들이 수없이 많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다수의 궁전들은 국가권력을 한손에 틀어쥔 최고 통치자들이 자기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 수천만금을 탕진하면서 세운 궁전으로서 호화와 사치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는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려오는 아이들의 궁전이 곳곳마다에 서있다.

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태어나면 애기 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실로 공화국은 어디가나 아이들의 궁전천지이다.



미래가 웃는 땅 (5)

《세상에 부림없어라!》

그가운데서 공화국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대로 응축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편된 만경대학소년궁전이야말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 사랑이 넘쳐흐르는 따뜻한 요람, 세상에 돌도없는 아이들의 만복의 궁전인것이다.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안을듯 어머니라 목청껏 부르며 그 품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간절한 소망을 금시라도 풀어주려는듯 두팔을 벌리고 서있는 궁전의 걸모양이 나의 마음을 자석마냥 끌어당겼다.

궁전안은 또 어떤가. 마치도 동화세계에 들어온듯 마음은 대번에 흥그러워졌고 날개라도 돋쳤는가 걸음은 아이적시절처럼 가벼워만졌다.

크나큰 건물의 내외부를 수천수만금을 들여 훌륭히 개건한것이 더욱 놀라웠지만 여기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 자녀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 띄워주고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종합적인 과외교육 교양기지, 인재교육의 원종장이라는 생각에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갈지자모양으로 특색있게 만들어진 책걸상들이 갖추어진 소조실에서 나라의 기동감, 미래의 인재들로 자라나고있는 컴퓨터소조원들의 모습이며 자기도 모르게 방실방실 넘쳐흐르는 웃음을 입가에 가득 담고 자기들의 행복상을 갖가지 색실로 한뼘두뼘 수놓아가는 수예소조 처녀애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견하였다.

전문배우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하게 꾸려진 소조실에서 배우는것이 너무도 기뻐 이마에 송골송골 내뿜는 땀방울을 훔칠 녀도 하지 않고 무용동작과 기법들을 익혀나가는 조선무용소조실의 수십명 소조원들은 또 얼마나 귀엽성스러운가.

실로 꿈만 같았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수 없는 행복의 궁전에서 특별대우까지 받으며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저 아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꽃수

레를 타고있는 나라의 왕이 아니겠는가.

각종 전자악기들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하고도 박력있는 선율 또한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앞날의 연주가들의 얼굴마다에 넘쳐나는 저 밝은 웃음을 지켜보느라니 10년만이 아니라 20년, 30년은 더 젊어질 것만 같았고 나도 두번다시 태어나 이런 궁전에서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펴고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 마음은 한없이 즐거워만 졌다.

맑은 물 출렁이는 수영관의 물소리 또한 유정하게 들려왔다. 국제경기도 할수 있을 정도로 품되어 꾸러놓으니 아이들이 물속에서 통 나오려 하지 않는다고 웃음절반, 자랑절반으로 터놓는 지도교원의 《격정거리》 또한 나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주었다.

아외에서도 자동차들을 타고 교통안전규정을 쉽게 배울수

있는 새 실습장을 따라 쉿쉿 달리며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자동차소조원들의 열정넘친 모습을 나는 가슴가득히 안아보았다.

과목별, 종목별, 부문별특색이 살아나도록 독특하게 꾸려진 각종 소조실들과 훈련장들, 어떤 형태의 예술공연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현대적미감과 동심에 맞게 전변된 극장과 아이들의 호텔-궁전합숙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휴식시간이 되자 저저마다 새로 놓인 폭신한 의자들에 앉아 재롱을 부리는 그 모습들, 단 한점의 그늘도 찾아볼수 없게 마음껏 웃고 떠드는 그 얼굴들이 나의 망막에서 사라질 줄 몰랐다.

아이들은 가식을 모른다.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행복을 감출 줄 모른다. 이제 저 애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늘 입가에서 웃음이 가실줄 모르고 행복하게 지낸 어린시절을 두고두고 추억할것이다. 또 자기들을 소중히 안아키운 고마운 품,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자기의 미래도 것처럼 아름답게 가꾸어나갈것이다.

나는 정녕 만경대학소년궁전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숭고한 미래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김정은령도자님께서만이 구상하시고 안겨주실수 있는 또 하나의 후대사랑의 고귀한 결정체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나는 만경대학소년궁전을 돌아보고나서 걱정에 겨워 목청껏 소리치고 싶었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

이들이, 하늘같은 사랑, 바다같은 은정이 너희들을 보살펴주고있단다. 그 따사로운 품속에서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하늘땅 저 멀리 메아리쳐가도록 더 크게 웃어라. 마음껏 노래하거라. 앞날의 강성조선이 바로 너희들의것이다.

인생말년에 처음으로 공화국을 방문한 나의 소감이 너무 협소한것 같다.

달변가가 된듯 하고 또 하여도 언젠가 시작인것만같아 밤이 지새도록 끝없이 하고만 싶어지는 별천지와도 같은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서방에서는 《페쇄사회》니, 《금단의 땅》이니 하며 공화국의 《인권》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그들이 공화국의 현실을 이처럼 예세 외면하며 《북인권》 문제를 그토록 목이 쉬게 불어대는것은 참다운 인권요람, 인권왕국인 조선의 실상이 서방세계에 전파되는것이 두려워시일것이다.

나는 행성에 어지럽게 나도는 《북인권》 설에 오염된 이들에게 권고하고싶다.

여러분들이 진실을 바로 알자면 조선에 직접 가보아야 한다. 참다운 인권존중의 세상이 바로 공화국인것이다.

조선이 강해진것은 비단 핵무기를 쥐어서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강해진것이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구현된 사랑의 천국이라는데 있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야래 인민의 만가지 꿈과 이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어나는 공화국은 오늘도 강하지만 미래는 더욱더 휘황찬란할것이다.

재미동포 박윤자 (끝)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예로부터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것은 각이한 계급과 계층을 애국애족의 공통된 리념으로 묶어세울수 있는 위대한 정론과 덕망을 지닌 성인만이 할수 있다고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평생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시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민족대단결위업에 불멸할 공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어 온 겨레가 사상과 정견,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피줄을 이은 민족구성원으로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끄시었다.

온 겨레가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1990년대 중엽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주체87(1998)년 4월 1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돛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시었다.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

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것이라고 하신 서한의 매 구절마다에서 온 겨레는 사상과 리념보다도 민족을 제일 중시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타는 민족애를 느낄수 있었으며 온 민족을 조국통일의 길에서 하나로 굳게 단합시키는 위력한 사상정신적기치인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실현의 확고한 담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할수 있었다.

이렇듯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현재 애국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포섭하여 기꺼이 손잡고 통일길로 나아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정론은 2년후 삼천리강도에 자주통일의 열망이 활화산처럼 타번진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시대를 안아왔다.

온 삼천리강도가 감동의 환희로 끓어번지던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은 민족의 태양을 따라 온 민족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면 능히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특기할 사변이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과 외국의

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 김대중대통령과 엮어낸 (세기적상봉극)은 질곡과 비탄의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일대 사변이였다. 그리고 7천만겨레에게는 상상을 뛰어넘어 질풍노도처럼 몰아타치는 평양발 뉴스의 홍수속에서 모두의 가슴깊이 웅어리졌던 한의 울을 풀어내는 감동적인 사변이였다.》, 《꼭꼭도 앓을것 같았던 빙산이 남북정상회담으로 녹으려 하고있다. 력사는 움직인다. 영원히 변치 않는것은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대서특필하시었다.

이로써 불신과 대결로 얼어든 북과 남 온 겨레의 가슴을 녹이며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휘몰아쳤다.

굳게 닫겼던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리고 끊어졌던 북과 남의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어 막혔던 피가 통하고 고였던 정과 열이 흐르기 시작했다.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숙원이며 지상의 과제이다. 외세에 의하여 들로 갈라져 장장 70여년, 겨레는 분렬의 이 비극을 기어이 가시고 통일조국에서 함께 모여살 그날을 일일천추로 바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당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길을 뚜렷이 밝혀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며 그것은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의 분렬을 하루빨리 가시려고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을 내놓으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으로써 민족자주와 단합의 굳건한 초석을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였으며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우리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시대를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돛 경축광장의 높은 연단에서 력사적인 첫 연설을 하시면서 진정으

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지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고 조국통일위

업을 기어이 성취할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해마다 하신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가시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예한 정세에 내세우시고 그 실현으로 밝혀주시었다.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전쟁과 분렬을 추구하는 외세와 그에 추종한 남조선 매국배족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첨예한 정세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탁월한 선군령도로 공화국의 자위의 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시어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

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천명하신 민족대단결에 대한 드림없는 신념과 철의 의지는 지금 온 겨레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민족은 반드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시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빛내이며 이 땅위에 통일된 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오영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길에서

분렬의 비극을 당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사활적이고 운명적인 과제는 없고 또 통일을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족이 단합하여야 한다.

민족보다 더 우선시되는것이 없고 민족을 위해서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와 거주지의 차이 등 모든것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것이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조국통일을 필생의 과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통일애국의 뜻이고 의지였다.

지난 1990년대초 북남합의서가 발표되어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기운이 높아지고있던 무렵이었다.

어느날 북남고위급회담 쌍방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고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 성과를 축하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향하여 참으로 귀중한 첫 걸음을 내디디었다고 하

시며 이 걸음은 이제 멈추어서도 안되고 주춤해서도 안되며 반드시 래일의 통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은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이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통일하자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 배척하고 이단시하는것은 민족을 사분오렬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하며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통점에 기초하여 단결하지 않고 차이점을 우선시하면서 서로 배척하고 적대시한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가도 통일을 실현할수 없게 되는것이다. 실사 실행때는 통일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지은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과거를 반성하고 통일을 위한 길을 걷는다면 잘못을 백지화하고 단합하여야 한다는것이 민족단합실현을 위한 수령님의 대범한 도량과 포용력이었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자면 천도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맑스를 믿든 상관하지 말고 다 단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비록 죄를 지었다 하여도 과거지사를 다 백지화하고 단결하자라는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민족우에 신이 없고 어떤 계급이나 당파적리익이 있을수 없으며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심연도 장벽도 뛰어넘지 못할것이 없다는 중지를 지니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어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신 민족단합과 통일의 구성이시였다.

본사기자 정무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지난 1970년대초 조국통일5대방침을 내놓으시였을 때였다.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방침을 접한 해외동포들은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기 위한 애국투쟁에 떨쳐나설 결의들을 표명하고

있었다. 그무렵 한 일군을 만나시고 해외동포들

속에서 높아지고있는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에 대한 동경과 공감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얼마전 남조선당국자들이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유엔동시가입론》을 들고나왔는데 그것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극악한 민족반역행위라고 하시었다. 그러시

면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5대방침은 놈들의 영구분렬책동을 파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침이라고, 이 애국애족적인 통일방안을 그 누가 받아들이지 않을수 있겠는가고 하시었다.

애국과 매국

이어 그이께서는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이라고,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통일을 원한다고, 조국통일은 참말로 민족의 량심이 가리키는 애국위업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이 최대의 애국위업이고 민족적변영이며 분렬은 곧 매국이고 민족의 불행이라는 명철한 철리가 담

겨진 그이의 교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장군님께서서는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정의를 품고 애국적인 민족이라고 하시면서 해외의 모든 동포들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떨쳐나설것이라고 하시었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에는 민족적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당파와 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통일의 길, 애국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열렬한 민족애와 통일정론이 담겨져있는것이였다.

본사기자

자주통일의 불멸의 가치

건히 수호하시었다.

핵강국의 전철에 당당히 들어서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앞에 내의 도전광들의 대조신압살, 반통일 책동이 물거품처럼 부서져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필승의 담력이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오늘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 각종 동포들속에서는 《우리 민족이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는 강한 민족이다》, 《이제는 이 땅에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가지고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담보가 열렸다》, 《그이를 모시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며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불구름을 막고 나라의 통일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을 헤아리시어 이변의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을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방침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온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며 우리 겨레는 절세위인의 확고한 통일외지, 투철한 자주정신, 열렬한 민족애를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의지와 현명한 령도가 있어 자주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홍은주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을 열어나가자

각 정당, 단체 책임일꾼들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하여 각 정당, 단체 책임일꾼들이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에서 지금 우리 인민과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을 무한한 감격과 격정속에 받아안고 열광적인 환호로 뚫어넘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불멸의 통일대강이며 온 겨레를 통일애국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애국애족의 기치이다.

여기에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확증된 민족자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량방제실현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있으며 현시기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그에 담겨진 사상의 현명성과 정당성, 뜨거운 민족애로 차넘치는 열렬한 호소성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나는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이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분별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겨레의 세기적숙망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된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찬동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지적하고 그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애국애족의 진정이 차넘치는 우리 당의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나간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통일애국의 뜻을 높이 받들어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하며 세기를 이어오는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안아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백옥같은 충정과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이 땅위에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거세찬 분출이라고 확신하면서 대회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찬동한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화보고에서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민족의 분렬을 더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관철하기 위한 조국통일방침으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량방제실현에 관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으로 보시고 그 실

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빛나게 계승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힌 자주통일의 기치, 애국애족의 정치대강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최고령수,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과업관철에서 조선로동당과 만리마의 교배를 함께 틀어쥐고 힘차게 돌진해나갈것이다.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장은 담화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명철하게 밝혀주신것처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면서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남사이에 신뢰의 분위기를 마련하며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범하고 야망있는 방침은 온 겨레와 북과 남의 정치인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고 하면서 북과 남은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여러 분야에서 각 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가 넘치는 주체적통일로선과 투쟁방침을 받아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통일의 지평선을 내다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과 고귀한 통일애국유산인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장과 조국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하고도 중대한 투쟁과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의 리정표이라고 하면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바라는 각계층 단체들과 애국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제2의 6.15자주통일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것이고 지적하였다.

류미영 전도교정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지금 전도교정우당의 전체 당원들과 천도교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애국애족의 마음과 힘을 강그리 바쳐나갈 결의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안아오기 위한 전민항쟁에 떨쳐나섰던 천도교 선렬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불멸의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총열기하여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치려는것은 천도교청우당의 전체 당원들과 천도교인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온 겨레를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에로 부르는 애국의 격문으로 받아안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동귀일체하여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다.

최진수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의장은 담화에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을 온 겨레가 심장깊이 새기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위대한 통일강령으로 확신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온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백승의 설계도를 받아안은 환희와 걱정으로 세차게 들끓고있는 이 시각 우리 범민련앞에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체로서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사고 있다고 하면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관철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밑에 이 땅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량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이 량대련합과 공동행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강려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은 담화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보고에서 밝혀주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량방제를 실현할데 대한 조국통일방침이 조국통일위업수행의 합법적적요구와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로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고무적기치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정한 것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민족대단결의 웅대한 뜻을 지니시고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민족이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통일강국을 건설해나갈데 대해 열렬히 호소하시었다고 하면서 전체 조선민족은 백두산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은 담화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성된 엄혹한 정세국면을 시급히 해소하는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해주시었다고 하면서 오늘의 첨예한 정세국면에서도 과거를 불문하고 남조선당군을 함께 손잡고나갈 통일의 동반자로 불러주시는것은 애국애족의 화신,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동포애와 대범한 아량의 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장장 70여년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렬의 고통과 불행에 겪고있는 민족의 수난사를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새롭게 제시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어떻게 실천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을 불멸의 통일대강으로 높이 받들고 이 땅위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체 조선민족의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해야 한다. 벼룩이 뛰어도 먼지를 일구지 못하는것처럼 외세에 매달린 한중도 안되는 민족반역자, 매국노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대하에 비하면 거품과 같은 존재들이다. 애국애족의 리념이 있고 단합의 경륜과 전통이 있는데야 우리 민족이 왜 대단결하지 못했는가.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나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대한 장래가 뛰어난 슬기로운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천하제일인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이 땅위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강국을

예로부터 단결은 힘이라고 했다. 그래서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는 말도 생겨났다. 장장 수십년간 분렬된 강토, 갈라진 민족으로 살고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대단결은 더없이 중대한 문제이다.

왜냐면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근본전제이기때문이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있고 민족적 단합,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체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애국애족, 조국통일을 떠난 사상과 리념, 정견, 신앙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필요하겠는가. 분렬된 조국의 현실과 갈라진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애국애족과 통일을 운운하는것은 공허한 메아리이고 어불성설이다. 통일을 위한 생각, 민족단합을 위한 걸음으로 보내지 않은 하루가 지나면 분렬의 하루가 또 늘어난다는 마음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리념아래 굳게 뭉쳐야 한다.

북과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래왕, 량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바란다고 생기는것이 아니고 누가 가져다 주는것이 아니라 민족자신이 만드는것이다.

우리 겨레에게는 애국애족의 리념아래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결,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이 있다. 해방전에는 우리 나라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에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반일성전에 떨쳐나섰고 해방후 1948년 4월에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성원 1천여만명을 대표하는 695명의 대표들이 모여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련석회의를 마련하였다.

민족의 분렬을 한시바삐 끝장내고저 북과 남이 공동으로 발표한 1972년의 7.4공동성명도 있고 1990년에는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애국적이며 거족적인 통일운동련합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도 결성하였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피어린 나날에 최동오나 박인진과 같은 신자도, 김정부와 같은 지

주도 반일의 기치아래 뭉치었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김구, 최덕신, 최후희와 같은 사람들이 반공, 친미에서 량공, 반미로 돌아서 통일애국의 대하에 합류하였다.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관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더우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어 자주통일의 역사적리정표를 마련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량대련합이 실현되었다. 우리 민족끼리,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앞으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련방제통일은 조국통일이 유일한 방도

민족분열의 장기화로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정치 체제가 존재하고있는 특수한 현실적조건에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고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다시금 천명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분열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민족의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련방제통일방안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해방후 오늘까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오고있다. 그리고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평화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과 오랜 역사적기간에 걸쳐 형성된 민족의 공동성을 보지 않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만을 절대시한다면 민족의 통일은 언제 가도 이루어질수 없을것이다. 반대로 북과 남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

다는것을 무시하고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다른 일방에 강요하는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과 충돌은 곧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재난을 초래할수 있다.

우리 나라가 처한 구체적실정과 현실에 비추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북남간의 대결을 피하고 민족적단결에 기초하는 련방제통일방식이상 없다.

련방제통일방식은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볼 때 그 정당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

최근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전쟁직전에 이르게 된것은 남조선당국이 《북붕괴》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체제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과 관련되어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북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동점이 있다고 인정

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이 합의한 통일방안문제에 대해 밝힌 6.15공동선언이 존중되던 시기에는 북남관계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지향적으로 순조롭게 발전해왔으며 지금처럼 조선반도에 험악한 긴장과 전쟁분위기가 없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보수 《정권》이 등장한 이래 북남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조선반도정세는 나날이 전쟁직경에로 치달았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은 남조선당국의 조국통일에 대한 그릇된 립장과 관점, 구체적으로 비현실적이며 반민족적인 통일관과도 관련된다.

남조선당국이 광고하는 《신프로세스》라는것만 놓고보아도 북을 변화시켜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해보겠다는것이며 《통일의 청사진》이라고 극구 추어올리는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 역시 도이칠란트식통일을 본딴것이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며 전쟁을 하자는것이아니 다름없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사회제도 발전에서 가장 우월하지만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한적이 없으며 강요하려 하지도 않는다.

지난 수십년동안 적대세력들은 이른바 《북붕괴》론과 《급변사태》를 요란하게 떠들어댔지만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는 날로 더욱 굳건해졌으며 붕괴와 파멸의 운명에 처한것은 남조선의 반인민적인 통치체제이고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이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에서 벗어나 저들의 고립과 파멸을 가져다줄 동족대결정책을 대담하게 버리고 온 민족이 지지하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실현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김장호

대화제의에 지체없이 응해나와야 한다

최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의 로선과 방침이 제시된것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와 진보적 인류의 커다란 공감과 찬양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특히 북남군사당국회담을 하루 빨리 열데 대한 제안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방책인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물론 세상 사람들의 각별한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대화제의에 대해 《진정성없는 선전공세》, 《제체균형을 노린 평화공세》로 매도하면서 무작정 부정, 거부하였는가 하면 나중에는 《비핵화조치가 우선》이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부당한 대화거부 립장을 합리화해보려고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군사적으로도 매우 예민한 최대열점수역 해 5개 섬일대에서 도발적인 포사격연습을 감행하고 이것도 성차지 않은지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대잠, 대함훈련을 강행하였다. 나중에는 룩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유사시 공화국의 후방지역에 침투해 핵, 미싸일기지를 비롯한 주요 군사시설들을 파괴하는 전문병양성놀음까지 벌리고있다.

총부리를 내대고는 평화화를 성취할수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적대감으로는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

지금처럼 북남군사당국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상태에서 위험한 대결국면이 계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예상치 않았던 무장충돌이 일어나고 전면전쟁으로까지 번져질지 모른다.

북과 남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수록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더욱 짙어지게 되며 우리 민족의 운명과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과 대비조차 할수 없는 전대미문의 참혹한 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사람들사이의 오해와 불신도 그것을 제때에 풀지 못하면 갈수록 깊어지고 나중에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불상사를 초래할수 있다.

하물며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총부리를 겨누는 상태에 있는 북과 남사이에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형형색색의 적대행위들이 계속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관계개선의 장애물인 일체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군사적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아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현 북남관계를 개선할 용의만 있는다면 대화를 마다할 사소 한 리유나 구실도 있을수 없다.

사실상 공화국의 계속되는 북남군사당국회담 제안에 대해 만나보기도 전에 《제체균형을 노린

평화공세》니, 《비핵화조치가 우선》이니 뭐니 하면서 끝끝내 거부해나서는것은 이번 제의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부정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경솔한 처사이며 북남관계악화와 조선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에 대한 물리해와 오관으로 일관된 부당한 생억지에 불과하다.

이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상대방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엄중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다.

그 어떤 일방적인 당리당략과 주의주장도, 그 누구의 체면이나 자존심도 민족의 운명우에 올려놓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뜨거운 민족애로부터 출발한 공화국의 대범하고 진정어린 아량을 제멋대로 오관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나 선후차가 있고 시기와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적대와 편견에 앞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

공화국의 대범하고 진정어린 호소를 외면하고 북남군사당국회담제안을 끝끝내 거부해나선다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직면한 북남관계는 헤여날수 없는 파국의 길로 출달음치게 될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은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안전을 놓고 맹렬한 리성으로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처신을 바로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남조선인민들

최근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세계의 여론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공화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하며 공화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미국정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나도는 소리이다.

미국정계와 전문가들속에서 《전략적인내》가 부정적인 외교방식이고 비참한 실패를 가져왔다면서 공화국과의 《대화재개》론이 울려나오고 《평화협정》체결을 여론에 흘리고있는것이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공화국과의 대화에 나설것인가?

그외에 다른 출로가 없다는것 또한 세계의 많은 전문가, 정치분석가들의 관평이다.

조선반도의 주객관적정세가 그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지향하기때문이다.

우선 력학구조가 달라졌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기초는 《힘의 만능》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화국

미국의 운명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에 어떠한 작용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의 수치고 패배의 립속으로만 이어졌다.

핵이 없었던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오늘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핵보유국의 전렬에 들어선 핵강국이 되었다.

비핵국가인 공화국을 핵강국으로 떠민것이 미국의 핵위협이라는것은 세계가 인정한것이다.

공화국의 정의의 핵, 자위의 핵에 의해 미국의 침략과 전쟁의 핵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수십년간 조선반도에 투자한 미국의 침략적인 정치군사적, 물질적자산은 밀빠진 독에 물을 퍼부은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과산을 의미한다. 미국이 《전략적인내》와 같은 대조선적대시입살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공화국은 자위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며 정밀화, 경량화, 지능화된 현대적이고 위력한 무기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박

차를 가할것이다.

최강의 핵억제력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과산을 선고한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에 차례질것은 더욱 비참한 참패와 종말일뿐이다.

공화국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아시아비전략의 일환이며 세계제패전략과 잇닿아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륙에로의 건넌다리》라고 떠벌이며 조선반도를 타고있기 위하여 1950년 조선전쟁도 일으키였고 조선반도의 남쪽에서 반공화국핵전쟁연습도 수십년간 벌려왔다.

까마귀 썩 잡아먹을 망상과 같은 《북붕괴론》과 터무니없는 《인련》모략소동은 또 어떠한가.

이 모든것은 다 아시아 지배,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고 그 연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흥심은 공화국에 의해 현실불가능의 망상으로만 되어왔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 책임있는 핵보유국이 된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로 더욱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고있다.

핵강국 공화국이 있어 미국의 아시아비전략도 세계제패전략도 구겨진 휴지조각이 될수밖에 없는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대세의 흐름을 외면한 망상이다.

자주와 평등, 정의와 진리,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는것은 세계적흐름이고 력사의 진리이다.

그러나 령전종식이후 극도로 오만해진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더욱 로 팔적으로 드러내고 강권과 전횡을 부리면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고 주권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왔다.

《민주주의》, 《자유화》, 《반테로전》의 간판아래 벌어지는 미국의 침략책동에 의해 세계는

민족분쟁, 종교분쟁 등으로 하루한시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으며 지구를 누비는 피난민사태는 전인류의 난문제로 되고있다.

인류는 미국의 《세계화》와 《인련옹호》, 《정의》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었으며 거기에 침을 뱉고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있다.

그 진군의 표대이고 기치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 암살책동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공화국, 누가 뭐라든 미국이 어떻게 발광하든 인공지구위성도 쏘아내고 최강의 수소탄도 보유하고 존엄을 지켜가는 공화국이다.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의 성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닌 공화국을 인류와 세계는 경탄의 마음으로 바라

보고있다.

하기에 미국이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공화국에 압살의 창끝을 돌리었을 때에도 수십여개의 나라들이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 민들이 공화국과의 뉴대와 련대성을 강화해나가고있다.

올해초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이후 유엔에 주재한 제3세계나라 대표들이 공화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어 자기 나라들의 립장을 대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것은 인류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실증해준다.

오늘의 정세는 미국이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무모한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릴수록 쓰디쓴 오욕과 치절한 대가만을 들뜨게 될것이라는 것을 웅변해준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달보고 짓는 개처럼 멍청이취급을 받게 될것이며 더욱 헤어나올수 없

는 구렁렁이에 빠지게 될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지향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미국은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공화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아직도 정전상태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언제 전쟁의 불길로 번지게 할지 알수 없다.

하지만 말로도 행동으로도 다 준비되었다는것이 공화국의 의지이고 실천이다.

미국이 우리 민족과 인류,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등한시하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한사코 침략야망, 지배주의야욕으로 엮어진 시대착오적인 강경일변도로 나간다면 공화국은 부득불 최강의 핵억제력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종말과 미국의 파멸을 인류사에 새겨놓을것이다.

미국의 운명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본사기자 김 정 역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도전

최근 8.15북남로동자측 구대회개최를 위한 북남로동자단체들의 실무접촉을 가로막아나섰던 남조선보수당국이 해외에서 6.15와 8.15계기 민족공동통일행사를 북과 협의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관계자들을 《보안법》 위반에 걸려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포괄화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통일부는 《6.15남측위 관계자들이 불법접촉》이니, 《북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고 개발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실시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느니,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것》이니 뉘니 하고 고아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장장 70여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아직까지도 분열의 고통과 불행 겪고 있는것은 더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더우기 영광의 5월과 더불어 울려 퍼진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는 온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무한한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 《분렬의 한을 씻어내는 길을 밝힌 백과전서적인 통일대강》으로 칭송하며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보내고있다. 이와 함께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고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도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분렬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하여 결성

된 전민족적통일운동련대 기구이다.

북남관계가 최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에 진행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 위원장회의에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도모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협의하고 민족공동행사와 다양한 련대활동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민족과 통일을 위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이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관계자들에 대한 남조선보수당국의 탄압소동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열기를 가로막고 통일애국세력말살을 노린 대결광신자들의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폭거이다.

남조선당국이 지난해에

도 6.15공동선언발표 15돐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갖은 방해책동끝에 파란시켰던것을 우리 겨레는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지나온 북남관계는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대활동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민족과 통일을 위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이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관계자들에 대한 남조선보수당국의 탄압소동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열기를 가로막고 통일애국세력말살을 노린 대결광신자들의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폭거이다.

남조선당국이 지난해에

기자회견과 집회를 왜 꺼려하는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공화국의 종업원들에 대한 집단유인람치를 보수당국이 의한 《기획탈북》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송환을 요구하는 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 남조선의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당국에 집단유인람치된 공화국의 처녀들과 만나게 해줄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들의 정당요구를 들어줄 대신에 악질적인 《탈북자》단체들의 모임인 《자유통일탈북자단체협의회》라는것을 내세워 도발적인 추태를 부림으로써 집단유인람치범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다 아는것처럼 공화국의 공민들은 《자의》로 남조선땅을 밟은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랍치되어 끌려간것이다.

이것은 랍치범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식당

종업원 처녀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유인람치사건이 남조선당국자와 유인람치의 마굴인 남조선정보원에 의해 감행된 계획적인 유인람치만행이라는데 대하여 격분에 넘쳐 낱말이 폭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아직까지도 이번 유인람치사건을 두고 처녀들의 황당무계한 억지주장을 펼치고있다.

《자의에 의한것》이라고 황당무계한 억지주장을 펼치고있다.

만일 처녀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남조선으로 갔다면 남조선당국이 《민변》을 비롯한 각계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끌어간 처녀들을 독방에 가두어놓고 외부와 완전격폐시키고 철저한 보도관제를 하고있기때문에 지금 그들의 부모형제들은 혈육의 생사여부조차 알지도 못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한두명도 아니고 10여명을 해외에서 유인람치하는 치명적인 반인륜적악행을 저지른 남조선당국의 죄악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다.

최근 지은데로 가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집단탈북》사건은 철두철미 반공화국제재와 압살이라는 정치적목적으로

남조선당국이 계획하고 조작한 특대형 반공화국모략사건이다.

공화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남조선당국에 집단유인람치만행을 사죄하고 공화국공민들을 무조건 돌려보낼것과 랍치행위에 가담한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신성한 공화국의 법정에 넘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가족들의 간절한 소망대로 판문점을 거쳐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만날수 있도록 실무적조치를 즉각 취할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자유의사》니, 《동경의 반영》이니 하는 파렴치한 꾀변을 내들고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저들의 죄과를 가리워보려 날뛰지만 그것은 오히려 유인람치왕초로서의 저들의 정체만 더욱더 날날이 발가놓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집단유인람치죄과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며 하루빨리 유인람치한 처녀들을 그리운 혈육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끝까지 이들의 송환을 가로막는다면 그로 하여 초래될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남조선당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지난 11일 남조선의 한 언론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에서 지카비루스실험을 추진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지카비루스는 에짚트 숲모기, 흰줄숲모기를 비롯한 특정한 모기들에 의하여 감염되는 비루스이다.

이 비루스에 감염된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소두증에 걸려 비정상적으로 발육되거나 죽게 되며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전파되어 세계보건기구가 경계령까지 내렸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듯 위험한 비루스를 공공연히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미군기지에 끌어들이려 실험하려 할으로써 저들의 흉악한 세균무기개발계획을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

내놓았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세균무기들을 마구 사용하여 우리 겨레를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전후에도 수많은 생화학무기들을 남조선에 배비해놓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이제는 지카비루스까지...
에 광분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서도 우리 민족을 노린 미국의 세균무기개발책동은 계속되어왔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지난해에도 《악마의 세균무기》로 알려진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10여차례나 남조선에 비밀리에 끌어들이 실험하였다.

이번에 미국이 남조선에 지카비루스를 끌어들이려

는 철두철미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적응되는 새로운 치사성세균무기를 만들어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살인악마들의 세균무기반입을 저지하고 처벌

대신 어물쩍 넘겨버리려는 쓸개빠진것을 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이 《지카비루스를 서울한복판에서 실험하겠다는것 자체가 안하무인이다.》고 하면서 규탄집회들을 열고 이 문제를 정확히 해명하고 실험추진을 중지하며 사과할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번역의 실수》, 《추진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라고 하면서 발뺌하고있다.

또한 친미애국노들은 상전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우면서 민족에게 끼칠 후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위험천만한 세균과 비루스를 남조선에 들여와 마구 실험을 하는 미국이나 그에 맞장구를 치는 남조선당국이 나 다 민족의 규탄을 면할수 없다.

온 겨레는 세기를 이어가며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과 불행만 강요하고있는 미국과 추악한 친미, 종미애국노들에 게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가습기살균제 검찰수사 만사지탄

너무도 오래 걸렸다. 2000년대초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4월에야 그로 인한 사망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고, 11월에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독성을 공식확인하면서 판매중단과 회수 권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피해 확인과 진상규명은 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140명, 공식피해의심 사례신고는 750건을 넘어섰다. 그동안 증증피해자들은 폐이식수술비 등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끈질긴 투쟁끝에 검찰수사가 시작됐지만 만사지탄과 부끄러움이 앞선다. 수백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엄청난 참사임에도 우리는 너무 무심했고 검찰수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수사가 늦은만큼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도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

책임대상이 되는 업체는 모두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다. 이들의 법적책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눌수 있다. 형사책임으로는 과실치사죄, 민사책임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적용될수 있다. ...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회사들이 인체위험성을 인지하고있었다는 정황, 대학교수들이 돈을 받고 책임을 부인하는 보고서를 써줬다는 의혹, 진상규명이 지연되는 동안 일명 대기업이 책임을 전탈하고자 유한회사로 형태를 바꾸고 증거를 인멸

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절망케 한다. 관련 대기업들은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사망의 인과관계판명에 온갖 전문적지식을 덧입혀 빠져나갈려 할것이다. ...

《잘못을 하면 시인을 하지 않는다. 시인을 하기보다 수많은 거짓말을 그우에 입힌다. 그 모든 거짓말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 요구한다. 사건이 터지면 호들갑을 떠는 대중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돈다발을 흔들며 일부와 불쾌 합의를 한다. 리간질을 하며 피해자들을 작은 단위로 쪼갬다.》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을 두고 어느 사람이 쓴 글이다.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길 바란다.

변호사 남성원 (남조선집단《주간동아》2016년 4월 20일호에서 전재)

계과싸움으로 망해가는 《새누리당》

등돌린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새누리당》이 시작한 이른바 《쇄신》놀음이 내부의 계과갈등을 심화시켜 당이 완전히 박살날 지경에 이르렀다.

《새누리당》안의 친박계와 《쇄신》의 간판을 내건 비박계사이의 당권쟁악을 위한 치열한 권력싸움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얼마전 《새누리당》은 당《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당혁신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당내의 친박계의 집단적인 참가거부로서의 열리지도 못하고 무산되고말았다.

회의장 곳곳에서는 《창피스럽다.》, 《《새누리당》은 망했다.》는 탄식이 쏟아져나오는 속에 비박계는 《《새누리당》은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집단이다.》, 《박근혜가 당을 공중분해시켰다.》며 친박계를 공격해나섰다.

반면에 친박계는 《첫단추를 잘못 꿰어 계과갈등을 야기시킨것은 비박계》라고 공격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해체를 들고나옴으로써 《새누리당》은 말그대로 와해직전에 이르렀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혁신》으로 당을 《전면쇄신》하겠다고 떠들며 어떤 계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정진석을 당원내 대표로 선출하였다.

선거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지도부가 전원사퇴함으로써 사실상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있는 정진석은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박근혜의 사당》이라는 오명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등돌린 민심을 되돌릴수 없다고 하면서 비박계를 위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꾸리려 하였다.

하여 그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 10명중 비박계

가 7명이나 되고 특히는 당의 혁신을 주관하는 혁신위원회 위원장마저 비박계인물로 내정되었다.

이미전부터 총선참패의 책임을 구실로 당권을 장악하려는 비박계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있던 친박계가 앞으로 당지도부의 역할과 당《쇄신》을 주도할 비상대책위원회와 당혁신위원회를 비박근혜과를 위주로 꾸리려는데 대해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

더우기 비박계의 당권장악을 허용하게 되면 《쇄신》의 칼날이 자기들에게 향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친박계는 이를 《비박근혜과의 쿠데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당권장악을 노린 계과대결로 당전국위원회는 무산되고말았으며 립시지도부라고 할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은 물거품으로 되고말았다.

와해직전에 이른 이런 상황을 반영한듯 《새누리당》안에서는 《《새누리당》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해산해야 한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제기되고있다.

당전국위원회가 계과대결로 무산되자마자 비박계에서는 이번 계과에 친박계와 결별하고 야당과 중도적인 세력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당을 따로 내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비박계가 당권장악을 노린 《인적쇄신》에 대한 친박계의 집단적반발을 누르고 비상대책위원회와 당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성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 《새누리당》이 와해되는것은 불가피한 전망이라고 평하고있다.

민심의 변화요구를 당권장악실현의 기회로 삼고 추악한 권력싸움으로 사회를 소란케 하는 썩고 병든 《새누리당》이 골백변 《쇄신》을 해도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총명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초보적인 판별능력도 없는 저능아

최근 공화국은 남조선 당국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가려는 동족의 의지와 노력을 똑바로 보고 책임적이며 리성적인 선택을 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선의에 극히 도발적망발로 공공연히 도전해나서고있다.

이러한 대결관동의 앞장에 바로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홍용표가 있다.

홍용표는 《지금은 대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느니, 《북이 이야기하는 대화는 진정성이 없다.》느니, 《비핵화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느니, 《북핵은 절대 인정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마구 내뱉고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제재와 압박수단이 더 필요하다.》, 《북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율적대응, 확고하고 단호한 대응》이니 하며 입에 거저품을 물고 동족대결을 앞장에서 선동하고 있다.

홍용표가 췌치는 이러한 대결망발들은 조선반

도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능력도 없는 몰지각한 망발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장장 70여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아직까지도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는것은 더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오늘의 현실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갈것을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공화국은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있지만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것을 바라지 않기때문에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지금 미국과 주변나라들은 물론 남조선내부에서까지 대화재개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때에 《지금은 대화를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19대 《국회》

남조선 방송이 보도하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가하지 않아 예정시간보다 30여분이나 늦게 시작되었고 그동안 처리되지 못하였던 130여건의 법안이 무리로 통과되었다고 방송은 비난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특법개정안을 비롯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동안 여야가 《국회》에서 무분별한 정쟁을 일삼아온 데 대해 방송은 폭로하

미국에서 올해 11월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트럼프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공화당에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경선기간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하면 미국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경제, 국제안보문제를 다룰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의 경제에 제어를 주는 나라라면 그 나라가 실사 《동맹국》이나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가림이 없이 이미 마련된 조약들을 저들의 리익을 위해 수정할것이며 또 《무임승차론》이라는것을 떠들며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나라들에서 주둔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것이다. 실례로 트럼프는 남조선이 남조선주둔 미군의 유지비를 100%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까지 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영구주둔을 바라는 남조선보수당국에 있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청천벼락같은 소리가 아닐수 없다.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으로 되겠는지 안되겠는지는 앞으로 보아야 할 미수이고 또 실사 그가 백악관에 틀고앉아 자기 공약을 리행하겠는지 말겠는지는 그때 가서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가관은 벌써부터 《트럼프포포》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남조선이 그 어느 《동맹국》보다 미군유지비를 더 많이 낸다고 아부제기를 치는 가 하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느니 뭐니 하며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분주량을 피우고있다. 그런 속에서 트럼프측근인물들에 대한 접촉을 부단히 추진하면서 저들의 친미사대정책에 대한 리해와 인식을 시키겠다는 놀음도 벌리고있다.

온 겨레가 한결같이 지지찬동하는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적이며 공명정대한 제안은 외면하고 아직 대통령도 아닌 일개 정객에 불과한 트럼프에게 매달려 비굴하게 높아대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추태는 그야말로 친미사대매국적근성의 극

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얼마전에 발표된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안이 조속히 실현되어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고대하고있다.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민족분렬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을 격화시키는 기본화근이며 주되는 요인으로서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국에 매달려 남조선강점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의 평화통일념원에 역행하는 천만부당한 반민족적, 반통일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군의 남조선주둔이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도 부합된다고 떠들며 미군의 영구주둔을 구걸하는것은 결국 남조선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지배를 위한 전초기지로 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이나 다름바 없다.

이번에 보여준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추태는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동맹》이라는것이 굴욕적인 예측동맹, 대아시아침략동맹이라는것을 만천하에 여지없이 보여주고있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된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친미사대주의 적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에 맹종맹동하며 대세의 흐름도 제대로 가려볼줄 모르는 머저리구실만 할것이다. 그로 하여 초래되는것은 조선반도긴장격화와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는 북남관계뿐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의 의사가 있고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구태의연하게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 할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친미사대매국적근성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립장에 돌아서야 하고 북의 애국애족의 립장에 즉시 응해나서야 한다.

김응철

사대매국적근성 언제면 버리겠는가

《유엔의 대조선 <제재> 는 왜 부당한가》(2)

미국정치평론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단죄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리유

북조선은 반세기이상 지속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부위행정부가 제창한 《핵 및 전쟁위협》을 계기로 최절정에 달하였다.

북조선의 주장은 핵보유국인 영국의 주장과 비교해볼때는 필요할것이다.

영국정부의 2006년 백서는 《영국의 핵무기는 자기의 사활적리익에 대한 핵위협이나 침략행위들 다시말하여 다른 이어의 수단으로 대응할수 없는 도전들을 억제하거나 사전에 막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다른 핵보유국인 로씨야도 자기의 핵병기고를 유지하는 리유에 대하여 류사한 론거를 들고있다. 미국의 2015년 국가안전

는데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리유와 관련하여 부전은 2012년 2월에 리아 노보스찌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내가 호주머니에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것이다. 그것은 언을것보다 잃을것이 더 많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자탄이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인도주의적간섭>을 기다리는수밖에 없을것이다.》고 썼다.

이라크점령후 미국무성 차관 볼튼은 북조선 등에 《이라크사태에서 웅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라고 훈시하였다.

북조선은 교훈을 찾았다. 그러나 볼튼이 바라던 그런 교훈은 아니다.

교훈은 무장해제가 침략을 불러오는 초청장파도 같다는것이였다.

이것은 그후 리비아사태에 의해서도 증명되였다.

서방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엉터리없는 미련을 가지고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들을 파괴해 버렸으며 결국 침략당하였다.

이라크도 이전에 같은 바보짓을 하였던것이다. 원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최근 20여년동안에 일어난 3가지 중대사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평양의 결심이 옳았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전 소련의 붕괴와 이라크, 리비아사태들을 목격하면서 북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에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니라 오직 핵으로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쟁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왔기때문이다.

유엔상임리사국들의 이중기준

북조선에는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라고 설교하면서도 5개 유엔상임리사국 모두가 저들의 핵병기고를 현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바로 이 5개 상임리사국들은 북조선이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또 다시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있다.

오바마는 10년동안에 800억US\$를 투자하여 핵병기고를 현대화할것을 약속하였으며 영국은 4척의 핵잠수함현대화에만도 막대한 자금을 처넣었다.

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떠드는 오바마는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비핵국가들을 반대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데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있다.

위성발사도 마찬가지로이다.

한해동안에 100개가 넘는 위성들이 우주공간에 발사되고있다.

그러나 오직 북조선의 위성발사만이 유엔안보리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어느 한 나라가 2012년에 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하였을 때 유엔안보리사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토와 미국은 이를 《축하》 해주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적이 없는 그 나라는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장거리목표에 운반할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나라에 대한 유엔과 서방의 《특혜》나 《보상》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미국은 북조선이 핵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을 한사코 방해해나서고있다.

우주의 평화적개발을 위하여 나라들이 리용하고있는 로켓기술개발을 금지하는 국제법은 없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금지하는 법도 없다.

북조선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결의》를 채택한 유엔안보리사회의 처사는 명백히 월런행위이다.

유엔안보리사회가 어느 나라는 위성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을 할수 있고 어느 나라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하는것은 다른 말로 누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을 가질수 있고 누구는 가질수 없다고 하는것이나 같다.

이러한 권능을 유엔성원국들은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들에 결코 위임하지 않았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잡다운 인권이 꽃피는 땅에서

* 2016년 봄철 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를 보고 *

얼마전 평양에서는 2016년 봄철 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가 진행되었다.

국가적인 관심속에 2010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는 국내장애자의 날(6월 18일)과 국제장애자의 날(12월 3일)을 맞으며 봄과 가을 두번에 걸쳐

강의한 정신력과 의지로

장애자부류와 나이별에 따르는 애호가부류로 나뉘어 단식과 복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장애인부류 단식경기였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결승경기에 출전한 김영록(14살)은 두손이 없는 선수였고 그와 맞선 김병남(52살)은 한눈을 상한 선수였던 것이다.

나이상으로 보나 육체적상대로 보나 대비가 안될것만 같은 이 경기에서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김영록선수가 우승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래웠다.

영예의 우승을 쟁취한 자기를 열렬히 축하해주는 사람들

보통사람들과 어깨 나란히

이번 2016년 봄철 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에서는 장애인과 애호가 한조가 되어 진행하는 복식경기도 있었다. 여

진행되곤 한다. 이번 2016년 봄철 장애인 및 애호가탁구경기에는 35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들과 애호가들 그리고 국제장애올림픽위원회 성원들과 국제탁구련맹 성원,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

에게 김영록선수는 《7살때 뜻밖의 사고로 두 손을 잃었다. 지금도 정신육체적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나에게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항일투사들을 생각하라고, 그들이 지녔던 강한 정신력과 의지만 있으면 못해낼일이 없다며 힘과 용기를 주시던 선생님들과 동무들을 잊을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런 정신력으로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난관과 시련이 막아나설 때마다 완강한 의지로 이겨내고 오늘은 우승의 시상대에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이다.

기에서는 전주현, 전정호조가 1등을 하였다.

전주현(30살)으로 말하면 20살때까지만 해도 대학의 실험

실조수로 있다가 뜻밖의 사고로 두다리마치고 척추까지 상했던 장애인이다. 이런 그가 결승경기에서 능란한 기술로 상대팀을 압도하는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전주현선수가 탁구를 배우기 시작한지는 불과 몇년밖에 안된다는데 대해, 몸이 불편한 그가 우울해할세라 그의 손에 탁구채를 쥐어주고 매일 탁구장에 데리고 다니며 하나하나 배워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자기를 친혈육처럼 살뜰히 도와주는 이들의 모습에서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사랑,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매일매시각 느낀 전주현선수였다. 하기에 그는 예선에서부터 결승경기까지 많은 경기들을 치러왔지만 힘든줄을 몰랐다고 한다. 앞으로의 목표는 장애인올림픽경기대회에 출전하여 꼭 우승하는것이다. 그래서 조국을 빛내어준다는 자기의 굳은 결심을 피력하는것이였다.

인간의 권리를 참담게 꽃피우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한 그의 결심도 꼭 실현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안고 우리는 경기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박철남



경제교류, 남북 더 활기를 띤다

— 제1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 —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는 제1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었다.

해마다 열리는 전람회이지만 이번 전람회가 가지는 의의는 남달랐다. 지난 1월과 2월 공화국의 수소탄시험 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반공화국제와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시점이였다. 세계가 지금 공화국이 력사에 튜레없는 《초강대제》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고있는 때이다.

이번 전람회에는 공화국과 뉴질랜드, 도이칠란드, 러시아, 로므니아,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중국, 캄보쟈, 타이, 오스트랄리아,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쿠바, 중국 대북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220여개 회사들이 참가하였다.

전자, 기계, 금속, 건재, 운수, 식료, 일용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들이 출품된 전람회장은 련일 수많은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전람회에서 해외기업들과 공화국의 회사들 사이에 여러 방면의 투자방안이 논의되었고 합의서 및 계약들도 많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단순히 고객들에게 자기의 상품을 더 많이 광고하고 판매하기 위한것으로만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강대제》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화국의 자립경제위력에 대한 확신이 여러 나라의 기업인들을 이번 전람회장으로 떠민 추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조선국제전람회 일꾼이 하는 말이였다. 실제로 이번 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기업인들은 제재가 공화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도로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캄보쟈만리래국제개발유한공사, 베트남도화사, 말레이시아 그린미드SDN회사, 로므니아첨단기술무역회사, 중국 단둥총화변경무역유한공사, 중국 길림성 길림시천선전기계품유한공사, 타이그레이트스타국제무역유한회사 등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회사들이 공화국과의 경제무역교류를 위하여 전람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전람회에서 공화국의 여러 회사들의 제품이 외국기업들과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유럽의 한 회사사장은 조선 제품이 대단히 질이 좋다, 조선의 과학기술력량이 막강하다, 돌아가서 조선에 대한 소개를 널리 하겠다고 말하였다.

오늘 공화국의 창조와 혁신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뒤떨어진것을 개조하는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전혀 없던것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고 누구도 못한다고 하던것을 기어이 해내며 지난날 상상도 못하던것을 현실로 전환시켜놓는 말 그대로 기적적인 창조이며 비약이라는것이다.

번영무역회사 천리마타일공장의 여러가지 색깔과 모양의 고급타일들과 건제품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첨단기술센터의 다기능전압주파수안정기와 고압 및 저압주파수변환기, 삼천리조명기술무역회사의 전기절약형 각종 레드조명기구들, 조선별무리무역회사의 다양한 정보기술제품들과 전기설비 및 전자제품들, 동양고려약공장과 토성 제약공장의 천연고려약제품들, 봄향기합작회사의 기능성화장품들... 하나하나가 모두 공화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들이였다.

보다 중요한것은 이 모든 제품들이 공화국의 원료와 자재, 자체의 힘과 기술에 기초한것이라는데 있다. 자강력제일주의가 낳은 산물이었던것이다.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최신과학기술성공들이 전시된 전람회장이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휩쓸려 들어 많은 나라들에서 생산감퇴와 기업파산, 실업사태로 아우성치는 때에 제재라는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것이 공화국의 현실임을 이번 제1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보여준셈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단편소설

불을 부르는 소리 (2)

글 오송심, 그림 김윤일

뒤미처 날아온 통보문에 림하영은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게

제주도가 고대라나요. 멋진 바다경치 엄마와 함께 봤으면... 금요일엔 돌아갈게요. 창경원 구경약속 꼭꼭! 엄마는 봄별, 정현인 봄바람.

만경창과를 헤가르는 리객선안이라 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통보문 송신방법을 선택한 모양이였다.

아들애의 살뜰한 통보문이 림하영을 비로소 봄의 훈향에 함뿍 젖어들게 하였다.

(그래, 봄이구나.)

림하영은 창문을 활 열 어젖혔다. 두손을 뒤로 꼭 지킨채 기운껏 대기를 호흡하였다. 단박에 기분이 붕 떠오른 림하영은 짐짓 으름장의 회답을 날렸다.

— 꽤 빨리두 알리네. 너 무 재미나 감감 잊었지? 돌아오면 혼내줄라.

홍그러운 마음에 어느 해 봄날이 몽게몽게 흰구름인양 떠올랐다.

정현이 급성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것은 애가 여섯살 잡히던 생일날이

였다. 열에 떠서 숨을 할씩이는 어린것을 지켜 림하영은 꼬박 닳새를 뜬눈으로 앉아있었다. 자식의 병을 대신 앓고싶은 애끓음속에 마음을 앓았다. 그러면서도 시종 웃는 얼굴로 정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엄마손은 약손이겠지?》

까실까실 말라드는 입술을 달싹이며 기대어린 눈빛을 보내는 정현에게 림하영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용케도 병을 이겨낸 정현이가 기록해 림하영은 애의 생일날을 맞으며 오래간만에 봄나들이를 갔었다.

파이란 잔디밭에서 좋아 강충대던 아들이가 목을 찔더니 두손을 높이 쳐들었다. 눈이 시그러워 잔뜩 쪼프리고 싶으면서도 웬일인지 고개도, 손도 내릴념을 앓았다. 한참 후에야 아들에게 두손을 자기 불에 가져다 대며 꿈울 꾸듯 중얼거렸다.

《히야~ 따뜻해! 이젠 엄마야. 엄마 내게 봄별이야.》

불면 날가 쥐면 꺼질가 애지중지 기술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에의 어머니 마음에 따스하게 닿았던것이다.

이름 못할 행복감에 휩싸인 림하영은 코끝이 매워나서 실눈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정현인? ... 음-장난 잘치는 봄바람?》

《 좋네! 엄마 봄별, 난 봄바람!》

봄하늘 가득 랑랑히 퍼져가던 그날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아니야. 정현이, 네가 봄별이구 봄바람이야. 난 내 인생의 전부, 이 엄마의 영원한 봄이란다.)

림하영은 아직 솜털이 보시시한 아들에의 이마 전이린듯싶은 손전화기화면에 살며시 입술을 가져다대었다. 키만 쟁쟁했지 철부지에 불과한 아들이가 갑절 그리워졌다. 바래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보고싶은 정현이다. 이럴줄 알았으면 공연히 보냈구 나섰었다. 이새를 활활 드러내고 해님처럼 웃는 그 애의 모습이 너무도 삼삼

하여 림하영은 봄꿈에 취해 한동안 그런듯이 서 있었다. 마침내 새로운 활기를 찾듯 흥분기분에 폭발을 재음미하려는데 문이 훌쩍 열렸다. 짧은 갈색머리의 신인가수 은미가 호들갑을 떨며 안으로 뛰어 들었다.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손기척 있었어?》

가지가 조연을 듣고싶어 몸살나 하였다. 그때마다 림하영은 특유의 싸늘한 미소로 매몰차게 밀막아버리곤 하였다. 《승배? 조연? 철없는것! 난 나고 너 너야. 멋대로 살아!》 상대가 누구든 정을 짖다가 배신의 고베를 드는 바보짓을 두번다시 할림하영이 아니였다. 하물며

부산을 피우는 처녀를 멍청히 보긴만 하였다. 짝 소식을 들었지 뒤따라 방에 들어온 장발의 바스타수도, 툭툭무레한 타악기연주가도 근심스레 림하영을 재촉하였다. 결의 수선에 떠밀려 림하영은 어망결에 림습실을 나섰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고 머리속이 온통 하얀게 어쩔수록 좋게 풀렸다. 그냥 속이 후득후득하여 현판문에 기대선채 꼼짝 못하고있었다. 림하영을 특징짓던 평소의 침착과 랭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특 쓰는 림하영의 면박에 순간적으로 목을 움츠리던 은미가 손사래를 쳤다. 《진짜 큰일이예요.》 도대체 육도 라지 않는 처녀이다. 림하영은 어이없이 홀평소에 은미는 창범이 건, 옷차림이건 무작정 림하영을 본따려 하면서

문 받았다.》 신호음이 또 울렸다. 짝 혀진 번호는 역시 아들의 것이였다. 《이래두?!》 림하영은 은미를 향해 코웃음을 날렸다. (너석, 엄마가 그렇게 보구실담.) 부푸는 행복감에 휩싸여 손전화기화면을 더듬던 림하영의 눈동자가 굳어졌다. 썩어진 글줄은... — 팽소리 났어. 배가 기울어오.

림하영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오히려 통보문을 건너 다본 은미가 울상이 되었다. 속이 달아서 림하영의 주위를 뱅뱅 돌던 처녀가 이번에는 인터넷에 접속한 제 손전화기를 림하영의 눈앞에 내들었다. 《봐요. (세월) 호참 사누스로 온통 벽작벽작해요.》 뜻밖의 충격으로 초점을 잃은 림하영의 눈에 무엇이 안겨올리 만무하였으나 은미는 그냥 뷰아대었다. 《뭘 해요? 빨리 가봐요.》 은미의 핀잔에 림하영은 또 한번 놀라며 물었다. 《어떡?...》 《아유, 진도지 어디겠어요.》 림하영은 목수건을 둘러준다, 코트를 입혀준다

새된 소리에 흠칫하며 돌아보니 은미였다. 신용카드랑 들어있는 손가방을 잊었다고 복새를 떨며 달려왔다. 부랴부랴 물어나와 택시를 잡아주는 동료약사들에게 떠밀리워 림하영은 진도길에 올랐다. 물메미같은 택시가 살같이 달리기 시작해서 한참만에야 림하영은 가깝게 질리며 겨우 외마디소리를 도했다. 《정현아-》 진도길은 더디기만 하였다. 시시각각 가슴을 조이는 우려로 가쁜숨을 몰아쉬는 림하영의 눈앞에 지난 일들이 생생히 되새겨났다.